

생활시간을 통해 본 청소년의 생활세계

김 외 숙(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박 은 정(성균관대학교 박사)

I. 문제제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동일하게 주어지고, 축적되지 않으며, 타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며,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시간사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이기영·김외숙, 2009). 생활시간이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의 생활내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시간분석을 통해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시간은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가치, 생활조건 등을 반영하므로 생활시간의 비교를 통해 국가간의 생활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모든 인간발달 단계가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이동해 가는 변화의 시기로 현재의 삶과 함께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학업 또는 일을 위한 미래의 준비 그리고 인생의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시간사용이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는 단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한희경, 2010; 최태열, 1991; 김선희, 1994; 김영숙·김지현, 2000; 김기현·이경상, 2006; 류지수, 2007; 박민자·손문금, 2007; 오만석, 2011; 최남숙·유소이, 2002)는 주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실태 및 관련변수 파악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 국제 비교 연구(김기현 외, 2009; 이연숙 외, 2002)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평일 및 일요일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고등학생과 비교하기로 한다. 비교의 대상으로 미국을 선정한 이유는 미국이 동양과 구분되는 서구사회의 대표적인 한 예라는 점과 함께 2003년부터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생활시간을 계속 조사하면서 그 원자료를 매년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사연도에 맞추어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적정성 및 자료사용의 편의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본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생활시간 연구는 주로 생활시간 실태를 파악하거나 관련변수를 밝히는 내용의 연구임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생활시간 실태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시간사용을 비교한 오만석의 연구(2010)에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고 대학생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며, 교제 및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에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이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학습과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감소하였고,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증가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학습시간 감소, 사교육의 초등학교로의 이동, 극히 적은 봉사활동 시간,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특정의 활동시간에 편중된 점 등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생리적 시간이 생활시간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평일에는 학업시간이 많았으나 주말에는 여가시간이 학업시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요일보다 토요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며,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김영숙·김지현, 2000).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관련변수는 성별이다. 성별로 볼 때 여학생이 봉사시간과 기타활동시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에 비해 남학생은 교제여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여학생이 학교 밖의 자율학습시간이 길었고, 남학생은 학교 밖 강습이 더 길었다. 전체 여가활동시간은 남학생이 높은 반면 교제활동은 여학생의 시간사용이 더 많았다(오만석, 2010).

김선희(199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은 생리적 시간 중 몸단장시간, 학업생활 중 학원수강시간, 가사노동 중 식생활, 청소, 의생활시간이 더 길었고, 아르바이트 시간과 사회·문화적 생활영역 중 신문·TV·라디오시간, 가족 단란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사회·문화적 생활영역 중 교양·독서시간, 취미·오락시간과 종교시간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영숙과 김지현의 연구(2000)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미국 청소년의 시간사용 패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연구(Gager et al., 1997; Porterfield & Winkler, 2007)에서 남학생은 가사노동 시간이 적은 반면 노동, 스포츠, 영화감상 시간이 더 많고 여학생은 과제활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시간은 하루 24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이 감소하는 zero-sum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성인의 경우 취업여부가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Kalenkoski와 Pablonia(2009)의 연구에서 비취업 청소년이 취업 청소년보다 과제, 특별활동, 스포츠, 수면, TV시청, 영화, 게임 등의 활동시간이 많은 점이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을 국제비교한 김기현 외

(2009)의 연구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시간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취업률이 서구와 비교해 낮은 관계로 청소년의 생활시간연구에서 취업여부 변수가 다른 인구학적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외에 학교급이나, 학년, 지역 등이 분석된 연구가 많으며, 가족형태(Gager et al., 1997; kalenkoski et al., 2009)나 부모의 교육수준(Gager et al., 1997; Kalenkoski et al., 2009; Porterfield & Winkler, 2007)과 같은 가족배경도 시간사용의 관련변수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한편 생활시간 비교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생활시간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과 미국 가족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이연숙 등의 연구는(2002) 한국 서울과 미국 유타주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미 양국 가족의 생활시간을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 연구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 및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각국의 자료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여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시간패턴을 비교연구한 김기현 등(2009)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핀란드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의 15~24세의 학생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국가별로 활동분류체계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자료는 원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발표된 통계치를 사용하였고, 원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활동분류체계의 통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 비교의 정밀성을 담보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시간구조의 특성과 성별, 취업여부 등 관련변수에 따른 차이 및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시기도 학교급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생활세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이라는 특정기간에 초점을 맞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대표성을 갖는 동일한 시기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한국과 미국의 정부통계기관이 조사한 대규모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생활시간의 전반적인 실태와 함께 각국에서의 성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평일 및 일요일의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평일 및 일요일의 생활시간구조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조사’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실시한 ‘2009년 ATUS(America Time Use Survey)’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가구의 1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10분 간격으로 구성된 시간일지에 응답자가 자기기입방식으로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미국의 경우 15세 이상의 조사대상 개인에게 조사원이 전화면접하기 전날 새벽 4시부터 전화하는 날 새벽 4시까지의 행동 중 5분 이상 지속된 행동을 조사자가 전화로 질문하며 컴퓨터에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15~18세의 고등학교 재학생이고, 시간분석자료는 평일과 일요일의 시간일지로서 한국의 1,734(평일 1,311, 일요일 423)사례와 미국의 321(평일 208, 일요일 113)사례이다. 분석대상 행동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다.

양국 자료의 비교를 위해 생활시간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으로 대분류하였으며, 필수생활시간에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를 포함시켰고, 의무생활시간에는 노동, 학습, 가사노동을 포함시켰다. 여가생활시간에는 미디어이용, 교제, 취미, 스포츠, 참여봉사, 종교, 기타여가, 기타(일지기록 등)를 포함시켰다. 생활시간의 양국비교를 위한 분류체계에서 통계청의 자체보고서와 크게 달리 분류된 항목은 ‘쇼핑 및 서비스 이용’과 ‘이동’이고, 우리나라 통계청 분류보다 활동을 세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문적, 개인 돌봄 서비스’와 ‘정부서비스 및 시민의무’와 같은 항목 등의 세부내용이 다양한 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¹⁾

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시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과 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성별에 따른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17.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평일				일요일				
	한국 (N=1,311)		미국 (N=208)		한국 (N=423)		미국 (N=113)		
	N	%	N	%	N	%	N	%	
연령	15세	309	23.6	30	14.4	100	23.6	27	23.9
	16세	472	36.0	96	46.2	147	34.8	35	31.0
	17세	423	32.3	59	28.4	144	34.0	42	37.2
	18세	107	8.2	23	11.1	32	7.6	9	8.0

1) 구체적인 활동분류 체계는 김외숙 외(2005) 참조

<표 1> 계속

구분		평일				일요일			
		한국 (N=1,311)		미국 (N=208)		한국 (N=423)		미국 (N=113)	
		N	%	N	%	N	%	N	%
성별	남	647	49.4	103	49.5	219	51.8	58	51.3
	여	664	50.6	105	50.5	204	48.2	55	48.7
경제활동여부	취업	17	1.3	48	23.1	8	1.9	34	30.1
	비취업	1,294	98.7	160	76.9	415	98.1	79	69.9

IV. 연구결과

1.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구조

<표 2> 한·미 고등학생의 평일 생활시간

생활시간구분	한국 (N=1,311)		미국 (N=208)		
	분	%	분	%	
필수생활시간	수면	400	27.8	527	36.6
	식사 및 간식	93	6.5	61	4.2
	기타개인관리	80	5.6	49	3.4
	소계	573	39.9	637	44.2
의무생활시간	노동	2	0.1	21	1.5
	학습	727	50.5	369	25.6
	가사노동	5	0.3	64	4.4
	소계	734	50.9	454	31.5
여가생활시간	미디어	34	2.4	149	10.3
	교제	47	3.3	55	3.8
	취미	30	2.1	40	2.8
	스포츠	8	0.5	51	3.5
	참여봉사	0	0.0	23	1.6
	종교	0	0.0	1	0.1
	기타여가	1	0.1	12	0.8
	기타	11	0.8	20	1.4
	소계	131	9.2	351	24.3
	합계		100.0		100.0

<표 3> 한·미 고등학생의 일요일 생활시간

생활시간구분	한국 (N=423)		미국 (N=113)		
	분	%	분	%	
필수생활시간	수 면	539	37.5	663	45.9
	식사 및 간식	95	6.6	64	4.4
	기타개인관리	81	5.6	46	3.2
	소 계	715	49.7	773	53.5
의무생활시간	노 동	5	0.3	46	3.2
	학 습	282	19.6	59	4.1
	가사노동	30	2.1	84	5.8
	소 계	317	22.0	189	13.1
여가생활시간	미디어	161	11.2	195	13.5
	교 계	49	3.4	73	5.0
	취 미	113	7.9	43	3.0
	스포츠	20	1.4	56	3.9
	참여봉사	1	0.1	37	2.5
	종 교	38	2.6	38	2.6
	기타여가	9	0.6	22	1.5
	기 타	16	1.1	20	1.4
	소 계	407	28.3	484	33.4
	합 계		100.0		100.0

2. 성별에 따른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구조

<표 4> 성별에 따른 한·미 고등학생의 평일 생활시간

생활시간구분	한국			미국			
	남 (N=647)	여 (N=664)	t	남 (N=103)	여 (N=105)	t	
필수생활시간	수 면	408	394	3.602	528	511	1.003
	식사 및 간식	93	90	2.490	61	63	0.409*
	기타개인관리	73	86	7.388***	44	55	2.359
	소 계	574	570	1.087	633	630	0.217
의무생활시간	노 동	3	1	1.898***	30	20	0.875
	학 습	718	733	2.042	371	401	1.002
	가사노동	3	7	4.171***	45	71	2.073
	소 계	724	741	2.380	446	491	1.157

<표 4> 계속

생활시간구분	한국			미국			
	남 (N=647)	여 (N=664)	t	남 (N=103)	여 (N=105)	t	
여가 생활 시간	미디어	33	36	1.371	158	131	1.510
	교 계	43	55	5.634**	44	69	1.987*
	취 미	41	20	7.910***	38	43	0.458
	스포츠	13	4	8.024***	74	20	4.407***
	참여봉사	0	0	1.342*	22	21	0.067
	종 교	0	0	0.190	1	2	0.746
	기타여가	0	1	2.856***	17	8	1.943**
	기 타	10	10	0.607	14	25	1.343*
	소 계	140	126	2.704**	368	318	1.853

*p<.05, **p<.01, ***p<.001

<표 5> 성별에 따른 한·미 고등학생의 일요일 생활시간

생활시간구분	한국			미국			
	남 (N=219)	여 (N=204)	t	남 (N=58)	여 (N=55)	t	
필수 생활 시간	수 면	533	550	1.545	670	665	0.246
	식사 및 간식	98	92	1.716	57	70	1.360
	기타개인관리	81	85	0.999*	35	57	3.328*
	소 계	711	727	1.347	762	792	1.214
의무 생활 시간	노 동	4	8	0.942	24	57	1.527**
	학 습	260	282	0.939	42	67	1.462
	가사노동	24	42	3.704***	82	97	0.629
	소 계	287	332	2.024	149	221	2.244
여가 생활 시간	미디어	160	173	1.171	222	172	1.602
	교 계	47	56	1.494	62	89	1.159
	취 미	154	72	8.458***	68	21	2.918***
	스포츠	27	10	4.015***	73	33	2.266**
	참여봉사	0	4	1.390**	19	48	1.935***
	종 교	31	37	0.713	42	30	0.822
	기타여가	6	12	2.030***	25	22	0.208
	기 타	16	15	0.893	25	14	1.149*
	소 계	441	379	3.157	536	430	2.796*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생활시간분석을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적인 생활은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습으로 보내고 2시간 정도의 여가 중 주로 하는 활동은 교제, 미디어사용 및 취미 활동이며, 가사노동이나 스포츠는 조금 하고 참여·봉사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수면시간이 9시간으로 증가하고 여가시간도 7시간 정도로 증가하며 학습시간은 4시간 반 정도로 감소한다. 일요일의 증가된 여가시간은 주로 미디어, 취미, 교제 활동에 사용되고 참여·봉사시간은 2분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생활영역별로 평일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고등학생은 미국 학생에 비해서 평일 평균 2시간 정도 적은 6시간 40분의 적은 수면을 취한다. 미국수면재단(NSF)이 적정 수면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성인 7~8시간, 청소년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일 수면시간이 지나치게 적은 점을 알 수 있다. 적당한 수면은 생활의 필수요소로서 신체적 발달 및 기억과 학습,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수면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12시간 7분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시간 9분을 학습하는 미국 고등학생의 1.9배 수준이다. 학생으로서 학습시간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은 학습시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가 항상 강한 정관계를 보이지 않는 점(김기현·이경상, 2006)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장시간 학습시간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업 편중은 의무생활 중에서 노동 및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지나친 학습시간 편중은 결과적으로 적은 여가시간(2시간 11분)으로 이어진다. 평일 평균 30분 이상을 사용하는 여가활동은 교제(47분), 미디어(34분), 취미(30분)에 한정되며 스포츠 시간은 8분에 그치고, 참여·봉사와 종교활동 시간은 평균 0분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자기존재의 의미와 자기존중의 정신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의 체험은 이상적인 공동체 삶에 대한 기초를 확립해 주어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안성호, 2001)고 볼 때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 학생들의 봉사활동 동기와 참여방법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요일에는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미국수면재단이 제안하는 적정수준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일의 절대적인 부족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수면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요일의 학습시간은 평일의 37%인 4시간 31분으로 감소하지만 이는 미국 학생의 5배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일요일에 증가된 6시간 51분의 여가시간은 주로 미디어(2시간 46분), 취미(1시간 55분), 교제(51분) 활동에 사용되고, 참여·봉사시간은 2분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미국 학생의 6%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고등학생의 노동시간이 12.5배(평일)~6.7배(일요일) 높는데 그 이유는 양국 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도 미국 학생이 우리나라보다 11.6배(평일)~2.7배(일요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의무활동 중 오직 학습에만 편중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양국 모두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 여학생은 교제활동에 다른 성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의 고등학생이 미국의 고등학생보다 성별 차이를 보이는 활동영역이 더 많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대표성 있는 시간일지 자료를 사용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시간사용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정밀하게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생활시간 분석의 의의를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상의 특성이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건강에 필수적인 수준의 수면을 취하면서 학습과 노동, 가사노동을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참여를 통해 행복하게 현재의 삶을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책은 청소년 본인의 시간관리에서부터 해당 학교나 가정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나 노동시장구조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현재 20개 국가의 시간조사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의 Database에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도 통합되면 보다 편리하게 국제비교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주제의 국제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기현 · 안선영 · 장상수 · 김미란 · 최동선(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외숙 · 이기영 · 이연숙 · 조희금 · 이승미(2005).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서울: 통계청.
- 이기영·김외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 이연숙 · 이기영 · 김외숙 · 조희금 · 주인숙(2002). 한 · 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0(3), 139-156.
- 오만석(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99-330.
- Gager, C. T., Cooney, T. M., Call, K. T.(1999). *The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time use on teenage girls' and boys' household labor*. Center for Research on Child Wellbeing Working paper, 98(1), 1-25.
- Marshall, Katherine(2007). The busy lives of teenagers. *Perspectives*, 5-15.
- Porterfield, S. L., & Winkler, A. E.(2007). Teen time use and parental education: Evidence from the CPS, MTF, and ATIS. *Monthly Labor Review*, 130(5), 37-56.

생활시간을 통해 본 청소년의 생활세계

권 희 경(창원대학교 교수)

우리 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함께 대학 입시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으로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 양국의 청소년 생활 시간을 비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 시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두 나라 청소년의 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두 나라 청소년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고등학생은 미국 학생에 비해서 평일과 일요일 모두 평균 2시간 정도 적은 수면을 취한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12시간 7분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시간 9분을 학습하는 미국 고등학생의 1.9배 수준이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지나친 학습시간 편중은 결과적으로 적은 여가시간(2시간 11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양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차이는 대학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실상을 미국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결과이다. 생활시간 분석 대상 청소년의 수가 한국이 미국보다 평일(6.3배)과 일요일(3.7배)일요일에 모두 더 많았음을 감안하고, 미국 청소년의 생활이 우리 나라 청소년의 생활보다 더 다양함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생활 시간의 차이는 양국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생활 시간에 있어서 성별 차이도 나타났다. 양국 모두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 여학생은 교제 활동에 다른 성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의 고등학생이 미국의 고등학생보다 성별 차이를 보이는 활동영역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 있어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 더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지하거나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성별 차이 및 성별 차이의 국가별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면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결과로서도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본 연구를 논문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굳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2>에서부터 <표 5>에 제시된 국가별 및 성별 생활 시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차이에 대한 검증이 추가되어 제기되면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일과 일요일 생활 시간 분석 대상 청소년의 수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는 원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평일과 일요일에 분석된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인지, 모두 다른 청소년인지에 대한 정보 및 분석 대상 청소년들이 모두 고등학생인지, 또는 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

년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아마 연구자들께서 이미 고찰하고 계시겠지만, 양국 청소년들의 생활 시간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여건에 대한 분석 및 본 연구 결과가 청소년 관련 현장 활동가들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한 논의가 덧붙여지면 본 연구의 결과가 더 의미있고 풍성하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